

제 목	4차 산업혁명과 공생(共生)(symbiosis)		
소속 대학	미디어스쿨(한림대)	소속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 번	2019	이 름	최**
이메일		연락처	

4차 산업혁명과 공생(共生)(symbiosis)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 들어가며 >

전 세계 인구 78억 명. 비슷한 부류의 인간들을 나누는 MBTI의 종류도 무려 16개. 하지만 16개의 인간들 안에서도 동성애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노인, 긴 머리, 대머리 등등 각각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나아가 이들과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 식물 같은 생명체들까지 어느 것 하나같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다 다른 것들이 함께 공생 중이다. 여기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공생 중인 생명체는 아니지만, 우리와 떼놓을 수 없는 친구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려 한다. 그 또는 그녀는 바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인공지능은 21세기 공생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생존이라는 단어와도 견줄 만큼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공생하고 있고, 현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AI의 혐오도 인간의 혐오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그 또는 그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AI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공생하면서도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 AI와 여성혐오 >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의 휴대전화기 속 AI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시리야~ 나 심심해’ 시리는 푹푹 농담을 해보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다. 시리라는 친구의 얼굴은 본 적 없지만 그녀는 분명히 여자다. 세상의 절반은 남자라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AI들은 대부분 여성의 목소리를 띄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AI의 목소리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아니라, 목소리에 따라 AI의 능력과 사용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서비스직의 AI는 대개 여성의 목소리를, 무언가를 추천해 주거나 전문적인 일처리가 필요할 때는 남자의 목소리를 띄고 있다. 카카오 미니나 기가 지니처럼 도우미라는 역할이 바

탕이 된 AI들은 여성의 목소리인 반면 카리스마나 전문적 행동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대부분 남성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기가 지나는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에서 “제가 여자라서...”라는 답변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여성이 단순히 남성의 보조적 역할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점차 해소되고 있는 문제를 다시 고착화 시켜 무의식 속에서 여성 혐오를 답습하게 한다. 이런 AI의 목소리가 성에 따른 직무수행을 이분법적으로 나뉜다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 성별이 없는 AI 목소리 'Q'를 발명하였다. 'Q'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의 중간 헤르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떤 성별인지 인식이 어렵다. 이는 여성 혐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디지털에서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기기가 빠르게 일상생활 영역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들도 목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AI와 공생하고 있는 사회라면 기계 또한 현실 세계만큼 여성 혐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에도 민감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의 여성 혐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딥페이크(Deepfake)가 바로 처음부터 여성성 착취를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사례이다. 중국의 한 프로그래머는 안면인식과 AI 기술을 남용하여 포르노 비디오 속 여성의 신원과 행적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발표했다. 기존의 포르노 동영상에 여성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도 인공지능이 여성성 착취에 의도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Deepfake) 문제는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포르노 동영상 합성 피해자의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이며 N 번 방 사건 중에서도 딥페이크(Deepfake) 관련 동영상이 수두룩했다. N 번방이 수면 위로 올라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트위터나 텀블러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딥페이크(Deepfake)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물론 딥페이크(Deepfake)의 기술이 학습, 뉴스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AI의 기술 자체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합성 포르노나 가짜 뉴스 등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경계하며 AI가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법안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합성 동영상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유포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규제는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약자들이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젠더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혐오 범죄의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사이버 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AI가 단순히 여성 혐오만을 부추기는 산물은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싶다. 역으로 AI는 여성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백델 테스트는 남성 위주의 영화 산

업에서 여성의 출연 비중이 적거나 성차별 같은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테스트다. 영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등장하는지, 여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지, 여성들이 나눈 대화 주제가 남성과 관련 없는지를 확인해야 통과할 수 있다. 물론 백델 테스트만으로는 영화의 다양성을 평가하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각적인 성적 대상화를 고려하기 어렵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이끌어내는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연구팀은 얼굴 감지 기술과 사물 감지 기술을 통해 영화 속 캐릭터의 정보를 감지, 감정적 다양성, 공간적 점유도, 평균 연령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알아 본 결과 현재 영화 산업 속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남성에게 비해 수동적인 감정 표현을 보이며 등장 시간도 남성 캐릭터의 절반 정도로 낮다는 것을 밝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영화 대부분이 여성을 편향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영화산업 속 스며든 여성 혐오를 분석함으로써 수동적인 형태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객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언제까지나 영화 산업 속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여성 혐오를 해소하여 건강한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어 창작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이다.

결론적으로 AI가 또 다른 형태로 부추기고 있는 여성 혐오와 새로운 형태로 해소해 나가는 여성 혐오,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보아야 한다. 인공지능이 가정이나 회사로 보편화됨에 따라 대기업은 인공지능이 이분법적 능력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해지는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델 테스트처럼 긍정적 기술을 도입하여 부정적 기술을 긍정적 기술이 검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진정한 공생(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일)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혐오를 답습하는 AI>

인터넷이 발달 된 이후 핸드폰 너머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되자 우리는 차별과 폭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했다. 동성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회변화 독려 유튜브 닷페이스는 온라인 키퍼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게시물에 해시태그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를 쓰며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이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2만5천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세계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강압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인종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blacklivesmatter과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 #alllivesmatter 해시태그를 쓰며 연대했다. AI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게시물을 추천해줌으로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운동들을 보여주어 혐오운동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흥미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과거 존재해있던 혐오세력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독려하기도 하며 소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오히려 희미해져 가는 혐오들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다. 2년 전 국회 국정 감사, 유튜브 가짜 뉴스에 붙은 광고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영상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에도 버젓이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가 붙었다. 구글은 당시 "유튜브는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대답을 내놨다. 혐오에 관한 문제를 AI를 치켜세워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흑인을 고릴라로, 아동을 성기구로 인식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르쳐주는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흡수하는 응용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I를 똑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학습하는 인간의 무의식 속 편견이나 혐오, 차별등이 AI에게도 자연스럽게 답습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별력 없는 정보들은 다시 인간에게 학습되어 큰 문제를 발생한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과 같이 정보 흡수에 미흡할 경우 더 위험하다.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은 인공지능을 철저히 교육해 역으로 차별이나 혐오 등을 잡아내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한다면 과학적으로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시선에서 볼 때 개선되지 않은 AI는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연장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가깝게 공생하는 친구를 만드는 만큼 기업들은 더욱 예민하게 신경 써야 한다.

<그럼에도 공생(共生)>

우리는 언제나 혐오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본인 또한 혐오의 가해자, 피해자 두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혐오는 무작정 혐오 가해자를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공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AI도 동일하다. 갑작스레 나타난 혐오의 방식이라 하여 무작정 AI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삶에 편리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혐오를 지양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혐오를 계속해서 인식해야 해소 되듯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민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부터 먼저 혐오와 차별에 대해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시금 에세이의 본질인 공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일' 서로에게 혐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공생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고 안아주면서 그럼에도 공생이 가능하도록, 그런 사회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한애라 (2019). 인공지능과 젠더차별. 이화젠더법학, 11(3), 1-39